

광주여성노동자회, '작은도서관' 4곳에 보육교사 파견

# 마을도서관이 아이를 키운다

광주 신가지구 도시공사아파트에 사는 세영(여·10)이는 학교가 끝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햇살도서관'으로 향한다. 그곳에 가면 또래들을 만날 수 있고, 책도 함께 읽으며 예쁜 글씨 POP과 NIE(신문활용교육)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학교가 끝나고 혼자서 학원으로, 도장으로 바빠 움직여야 했는데 이제는 아파트 근처 작은도서관에만 가면 놀이와 공부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아파트 부녀회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보육교사가 파견됐기에 가능했다.

광주여성노동자회(회장 주경미)는 지난 5월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 후원으로 '지역이 함께 돌보는 저소득층 가구 보육 서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안적 보육모델인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마을도서관 공동보육'은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에 보육교사를 파견해 공동교육을 보조하는 사업. 광주여성노동자회는 현재 3곳(광산구 신가지구 도시공사햇살도서관, 북구 임동주공단지개발도서관, 서구 삼우주공단지개발도서관)에 보육교사를 파견한 상태다.

마을도서관 공동보육은 아파트 주변 보육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마을도서관이 공동체를 위한 문화·교육공간으로 바뀐에 따라 많은 아이를 보다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게 했고, 부모들도 아이 키우는 문제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프로그램 이용료도 재료비와 실비 정도, 한 달에 2만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신가지구 도시공사햇살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주부 박태순(39)씨는 "보육교사가 파견돼 이제 주 5일 동안 도서관 문을 열 수 있게 됐다"며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 부모로부터 좋은 평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신가지구 도시공사햇살도서관의 경우 평소 10명 안팎이었던 이용자들이 보육교사 파견 이후 30여 명으로 늘었다.

특히 여름방학 기간에는 보육교사의 지도로 북아트, 미술놀이, 독서교육 프로그램 등도 진행해 각각 수강생만 20명이 넘는 등 성공을 거뒀다.

여름방학을 기해 아이를 작은도서관에 보낸 맞벌이 김모(여·38세)씨는 "학교가 끝난 후 혼자 무료하게 지내는 아이가 안타까웠는데 가까운 곳에 아이를 보내 안심이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의 솜씨를 뽐내는 작품 전시회와 재활용의 즐거움을 같이하는 나눔장터도 개최했다. 지난 1일 광주시 북구 임동주공단지개발도서관 앞에서 열린 마을장터에는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광주여성노동자회 한지연 실업빈곤팀장은 "현재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일환으로 30여명의 보육교사들이 파견된 상태"라며 "마을도서관 공동보육이 공동체 보육의 기초를 마련하는 대안보육모델로, 상생의 공동체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보육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신가지구 도시공사햇살도서관 내부 모습.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여성노동자회는 조만간 광산구 철당초반도서관에도 보육교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문의 062-361-3029. /김대성기자 bigkim@



임동주공단지개발도서관을 찾은 아이들이 미술놀이 수업을 하고 있다. <광주여성노동자회 제공>

# 이건음악회 '베네비츠 콰르텟' 초청

<체코 대표 실내악단>

26일 5·18문화관... 12일까지 홈페이지 무료 티켓 신청

시스템 창조 전문기업 이건창호(회장 박영주)가 주최하는 '이건음악회'가 서울과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열린다.

지난해 피아니스트 김선욱 공연을 진행했던 이 건음악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체코 출신 '베네비츠 콰르텟'(사진)

초청 연주회를 갖는다. 체코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베네비츠 콰르텟은 일본 오사카 국제 실내악대회 금메달(2005),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 프레미오 파올로 현악 4중주 대회 대상(2008) 등을 수상한 실력과 뮤지션 그룹이다. 이번 연주회의 레퍼토리는 체코 작곡가 스메타



나의 '현악 4중주곡 2번', 드보르작의 '츠크백나무', 브람스의 '현악 4중주곡 3번 작품 67'이다. 티켓은 12일까지 이 건 홈페이지(www.egan.com)를 통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무료로 배부한다. 문의 080-220-3000. /김미은기자 mekim@

# 젊은 작가들의 감성

광주미술관회, 7~13일 기획초대전

지역 미술 발전과 광주시립미술관을 후원하는 단체인 (사)광주미술관회(회장 김응서)가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해 오는 7~13일 광주 상계갤러리에서 '제4회 기획초대' 전을 연다. 광주미술관회가 전남대·조선대·호남대를 졸업한 신진 작가 9명을 선발해 후원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는 김영일·김혁·무비·박성완·박성진·배귀영·서영기·윤준영·홍은표씨가 참여해 젊은 감성이 묻어나는 신작을 발표한다.

김혁씨는 영화 속 영웅과 악당인 '배트맨'과 '로빈'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연작을 전시하고, 박성완씨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한창이던 전남도청 일대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또 배귀영씨는 눈물, 꽃, 꺾은 줄로 한쪽 눈을 가린 소녀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홍은표씨는 물기를 머금은 식물을 소재로 한 그림을 전시한다.

지난 2003년 창립한 광주미술관회는 예향 광주의 자존심과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미술에 대한



배귀영 작 '눈물 거닐다'

안목을 넓히기 위해 전시회 관람과 미술관 투어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대안 고공 박물관 탐방, 사찰·달리전 관람, 문화 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문의 062-233-948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가을밤 적시는 아름다운 하모니

광주여성필하모니 9일 정기연주회

광주여성 챔버 앙상블이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17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9일 오후 7시30분 광주빛고을 시민문화관.

광주여성필하모니 오케스트라(단장 김유정·사진)는 지난 1999년 지역 유일의 여성 챔버 앙상블로 출발한 후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 60명 규모의 대편성으로 확장했다.

이번 연주회는 그리그의 '페르균티트' 중 '아침'을 문을 열어 브르흐의 '올 니드라이', 사라사테 '찌코이네라바이젠',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 목소리', '클래식 하이 라이트 메들리' 등을 들려준다.

변옥씨가 객원지휘를 맡았으며 소프라노 이승현, 바리톤 김치영,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 첼리스트 지선영, 하플라데에솔단이 협연무대를 갖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묘·병자호란과 호남의병' 심포지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내일 광주교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문병란)이 주관하는 제3회 학술심포지엄이 7일 오후 2시 광주교육대 교육매체관에서 열린다.

'정묘·병자호란과 호남의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묘·병자호란 당시 일어난 호남의병에 대해 철학, 사학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들이 참가해 토론을 펼친다.

김덕진(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정묘호란과 호남의병', 류창규(남부대학 대체의학과) 교수가 '병자호란과 호남의병', 권수용(호남한문학회) 연구원은 '호남병자호란의 간행과 그 의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한다. 송삼섭(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안동교(조선대 한국학자료센터 전임연구원), 김경옥(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문의 062-234-272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피아노 듀오협회 정기연주회

9일 5·18 기념문화관

광주피아노 듀오협회(회장 김명·사진) 정기연주회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5·18기념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베토벤', '사랑의 밤', '눈물', '러시아의 부활절'로 구성된 라흐마니노프의 '환상곡 1번 작품번호 5', 라벨의 관현악곡을 피아노 듀오곡으로 편곡한 '세헤라자데' 서곡, 리스트의 '돈 주앙의 추억', 프랑크 현대 음악가 다리우스 미요 곡으로 라틴풍의 흥겨움이 느껴지는 '스카라무슈' 등을 들려준다.

출연자는 최지숙·함숙경·기영은·이재선·류영아·오경민·조성경·김미영·김신영·손일씨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CREEN GOLF**

# 두암골프존

**SEASON EVENT**  
2010년 11월30일까지 진행합니다.  
**18홀 13,000원**  
(오전12시 티업까지 10,000원)

- Season event는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에만 적용합니다.
- 유료코스 이용시에는 고객님께서 2,000원을 부담합니다.
- 2010년 12월 01일부터는 정상요금으로 포인트 적립해드립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최고시설 5개홀  
전타석 스윙플레이트  
윈손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룸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일제외)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떨드의 느낌을 그대로...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만나는 순간,  
여러분께 리더의 자부심을 약속합니다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환도로쪽 70m [햇살 5층]  
예약 **234-9999**

www.dreamkorea.biz

#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드림방수의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습윤상태에서도 방수를 할 수 있다.
- 기술이 필요없다. • 미끄러움, 방지가능을 한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경제적이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방수제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 옥상 • 외벽 • 지하실 • 공장바닥 • 주차장
- 휴전 • 물탱크 • 양이장 • 수영장 • 기와집
- 화장실 타일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냄새 나는 집
-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부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생산취급목록	DK 301 강력 접착도막 방수제	DK 302 준강력 다목적 방수제	DK 303 녹색 철물 코팅 방수제	DK 305 보색 침투 도막 방수제	DK 306 방수용 수성 투명방수제	DK 307 판넬 방수제	DK 3000 슈퍼 드림폴드	DK 1000 드림판
--------	--------------------	--------------------	---------------------	---------------------	---------------------	---------------	-----------------	-------------

**신제품** **플랫 부어 사용하는 - 강력접착지등수평바닥제 DK-1000**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공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인증 품질보증업체입니다. 고어텍스공법 특허명

**드림코리아 DREAM KOREA**  
광주·전남 대리점

광산구 062)941-3266 북 구 062)433-2225 여 수 061)662-3002  
남 구 062)430-5777 순 천 061)746-5556 해 남 061)532-9789  
서 구 062)372-7704 나 주 061)333-7789  
동 구 062)234-6698 목 포 061)242-2220